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September 29, 2016 Vol. 547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광고'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12월 5일부터 8주간

지난 6월8일부터 약 6주간 뉴욕 타임스퀘어 근방 전화 부스에 설치된 복음광고를 한 현지 여성이 지켜보고 있다. '복음의 전함'은 전화 부스 광고의 호응을 기반으로 타임스퀘어 전광판 복음광고를 오는 12월5일부터 8주간 시작한다.

세계 경제 문화 중심의 상징인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가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8주간 게재된다.

6대 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광고 선교 기관 '복음의 전함'은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첫 번째 단계로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를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메말라진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은 연간 유동 인구가 5억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경제 문화의 상징지로 여겨져 왔다.

앞서 '복음의 전함'은 지난 6월 8일~7월 24일까지 약 6주간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47가의 전화 부스에 영문 광고를 게재했다. 배우 주다영 씨가 모델로 출연한 이 광고는 전화 부스를 지나는 이들에게 잔잔한 은혜의 감동을 전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이번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는 맨하탄을 방문한 많은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상업화되고 세속화된 도시에 하나님을 다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음의 전함'은 맨하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태국 방콕(2~3월), 호주 시드니(4~5월), 브라질 상파울루(6~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8~9월), 영국 런던(10~11월) 등 나머지 5대주 대도시에도 복음 광고를 계획하고 있다.

'복음의 전함'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에서 일간지 광고를 비롯해 강남역, 홍대입구역, 부산 지하철 등 국내 주요 지역에서 복음광고를 제작, 게재해 오고 있다.

'복음의 전함'을 창립한 고정민 이사장은 전문 광고인 출신이며 복음 광고 외에도 649개 미자립 교회를 위해 무료 전도지 및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복음 광고는 후원과 기도로 현재까지 이뤄져 왔으며, 이번 맨하탄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하는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위해서 후원자 10만 명을 목표로 후원자들을 모집 중이다.

"북핵 저지 위한 구국기도회"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 위해 동포들 나서야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에서는 북핵의 위험성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주 동포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9월 25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한국과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그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 기도회에서 설교한 이종윤 목사(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한국 상임대표)는 북핵 저지 운동을 삼일운동에 비교하며 교회가 중심이 되어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취지를 설명한 서경석 목사(한국 공동집행위원장)는 "북핵 서명 운동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1천만 명이 서명하게 되면 북핵을 용인하겠다고 했던 세력들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목사는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서 "한국이 현재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만이 한국을 지킬 유일한 해답이다. 미국에 있는 한인 시민들이 미국 대선 후보를 향해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도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9월 25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 세계 국가 중 약 24%, 종교자유 직접적 침해"

2015년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전 세계적으로 종교자유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약 24%의 국가가 종교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사퍼스테인 국제종교자유 특임 대사는 9월 27일 워싱턴D.C에서 2015년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보고했다.

그는 또 "이들 나라의 정부가 신성모독과 개종으로 인한 고소로 야기된 사회적 폭력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IS나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단체들에 대해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지독하게 억압하는 이들'이라고 칭해 이들의 행위를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이란의 수니파 무슬림과 소수 종교인들, 유럽의 반유대주의 활동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강혜진 기자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남가주 교계…제43회 LA한인축제장에서도 계속해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남가주 교계의 서명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서명 운동은 9월 22일~25일까지 LA한인타운의 중심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제43회 한인축제 기간 동안에도 이어졌다.

축제가 시작된 9월22일에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이 행사장에서 북핵 폐기를 촉구하며 한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엄규서 회장과 김종용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나섰다.

이들은 행사장을 방문한 한인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관련사진 2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카센,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기도회 다음 날인 9월 26일에는 "한반도 핵 위기 상황과 미주 한인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간담회가 이어졌다.

"북핵 저지 위한 구국기도회"

'한반도 핵 위기 상황과 미주 한인의 과제' 주제 동포간담회도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연설이었다. 미 의회 내에서 최고의 친한파로 꼽히는 그는 그동안 북한 인권법, 독도 영유권 분쟁, 평화의 소녀상 문제 등에 있어서 여론을 주도해 왔다. 로이스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신앙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 북한 압박을 위한 경제 제재 등을 소개했다. 그는 끝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기도회에 초대되어 영광이다. 우리 모두 북한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탈북자인 송지혜 집사의 간증,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미국에서 북핵 폐기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강연도 진행됐다.

한편 기도회 다음날인 26일에는 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이종윤 목사, 서경석 목사, 박휘락 교수 등 한국측 관계자들과 박희민 목사,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최학량 목사 등이 동포사회 지도자들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핵 위기 상황과 미주 한인 과제"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지난 2011년 저서 〈디아스포라를 향한 복음 설교자〉 출판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던 동양선교교회 故임동선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선교하겠다"

미주한인교계의 원로 임동선 목사 소천

미주 한인교계의 원로인 임동선 목사(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가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오후 9시 6분경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로 섬기던 故 임 목사는 이 교회 박형은 담임목사와 함께 남미 4개국으로 열흘간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폐렴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은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에도 평소처럼 "세계 100개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힘을 쏟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선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말처럼 故임 목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에 힘썼다.

1923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故임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북침례신학교, 샌안토니오 미공군 군목학교, 풀러신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공군대령으로 한국 초대 군종감을 지냈으며 1970년 LA 한인타운에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이민교회로 성장시켰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등도 역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상, 국방장관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았으며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 등의 책을 남겼다.

김준형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제8차 정기총회가 9월 22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8차 예장국제총회 정기총회…교단차원 성경일독 캠페인

9월 19일부터 시작된 GMI 세계선교대회 마지막 날인 9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제8차 정기총회가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국제총회는 임원의 임기가 2년이기에 올해는 선거가 없었고 교단의 현안들만 처리됐다.

국제총회는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교단의 모토로 삼고 소속 교회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각 교회를 위해 성경 일독 달력을 주문, 제작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효율적 선교를 위해 선교지 권역도 재편하기로 했다. 국제총회 산하에는 미주노회, 유럽노회, 한국노회가 있으며 선교지 노회로 중남미노회, 중국노회, 구소련노회, 아시아노회, 아프리카노회, 2세노회가 있다.

또 선교사 간 교류 활성화도 논의됐다. 교단 산하 해외선교부인 GMI 소속 파송선교사 307명 가운데 은혜한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39명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도 은혜한인교회 파송선교사와 교단 내 다른 교회 파송선교사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총회원들은 은퇴 목회자들의 연금과 상조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김준형 기자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제4회 LA한인축제장 방문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일동

[1면으로부터 계속]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남가주지부가 LA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이 한인들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제4회 LA한인축제가 열린 서울국제공원을 찾았다.

미주복음방송 방송선교 기금 모금

10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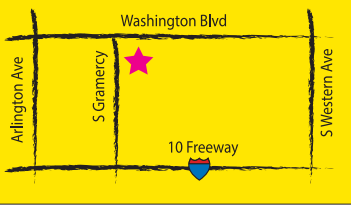
LA, 가든그로브, 얼바인, 토랜스에 있는 H마트 다
이아몬드바와 풀러튼에 있는 한남체인
세리토스 시온마켓, 풀러튼 아리랑마켓
미주복음방송 LA오피스
문의: 714-484-1190

1. Garden Grove/H Mart(8911 Garden Grove Blvd, GG, CA 92844)
2. Cerritos /Artesia시온마켓(133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3. Diamond Bar & Rowland Height/한남체인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4. Fullerton 한남체인(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5. 아리랑마켓(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6. Irvine/H Mart(2600 Alton Pkwy. Irvine, CA 92604)
7. Torrance/H Mart(4340 Pasific Coast Hwy,Torrance, CA 90505)
8. LA /CGV Mall(1층)(621 S. Western Ave. LA, CA 90005)
9. H Mart(지하) (621 S. Western Ave. LA, CA 90005)
10. 미주복음방송-LA office(621. S. Virgil Ave, LA, CA 90005)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SUPER AUTO DENT BODY INC & AUTOTECH
Super Autotech
수퍼 자동차 덴트 바디&오토텍
www.superautodent.com
자동차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보험, 토잉, 렌트카까지 원스탑 서비스! (24시간 대기)
Mercedes-Benz BMW LEXUS Audi PORSCHE HYUNDAI KIA Ford HONDA ACURA

T.323.730.1530 영업시간 : 월~ 금 (AM 8:00~PM 5:00)
233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워싱턴 블루버드 + 그래머시 플레이스)



국가 브랜드 4D프레임 · K-EDU

▮(주)포디랜드 양효숙 대표/포디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 유연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 생명의 원천인 유연성을 접목시키니 4D프레임이 탄생했다. 기존의 정형화되고 딱딱하기만 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유연성을 더하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4D프레임의 개발자인 박호걸 소장은 〈4D프레임〉에 〈제3의 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듯 4D프레임이 생명의 근원인 흙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4D프레임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본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 모든 것이 재미있고 신기하다. 재미가 있으니 당연히 이해속도도 빠르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신기해요", "하루종일 이것만 하고 싶어요"

4D프레임 체험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다.

4D프레임은 한국에서 유초등을 비롯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현장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교육 교구 및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4D수리과학체험관이 상설되어 있음은 이를 반증해 준다. 이 체험학습공간은 수학을 테마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학체험학습장이다. 그 밖에도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수학회,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국립서울과학관,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국립서울과학관 등 다수의 연구기관 및 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원더월드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가,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등에 이르기까지 4D프레임 지경 확장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에 이르는 교원연수 및 워크숍과 시도교육청의 발명 및 영재반 교육 등과 연계하여 국가적인 창의적 인재 양성에 참여하는 것도 포디랜드가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 8일(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10회 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제2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가 열린다. 스웨덴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 대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4D프레임은 완성품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컨텐츠와 과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미 정해진 완성품으로는 절대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한 창의계발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4D프레임 컨텐츠의 강점인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에 보다 집중하며 아이들이 더 넓은 상상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D프레임은 국내가 아닌 세계가 먼저 알아주기 시작했다. 다름아닌 교육 선진국의 선두주자 스웨덴이 알아줬다. 지난 2009년 스웨덴 과학기술박물관에는 〈레고〉 전시관을 거둬낸 바로 그 자리에 4D프레임 수리과학체험관이 들어섰다.

양효숙 대표는 2년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까다로운 심사기간과 6개월간의 긴 기다림의 침묵의 시간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었다며 그 때 일을 회상했다. 전시관을 개관하던 날, 밖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달려온 교민과 서로 얼싸안고 하염없이 흘리던 감격의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후 스웨덴 구스타보 국왕은 양 대표를 직접 초청해 특별연수를 부탁하기도 했다.

박호걸 소장.

만지는 수학, 체험하는 과학
창의적인 조형
제3의 흙 4D프레임

한국식 수리과학교육문화로
전세계에 창의적 교육문화 선도

21세기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 선진국 스웨덴을 비롯
16개 국에 수출

[사진설명](왼쪽으로부터)박호걸 소장이 4D프레임 교구로 완성한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양효숙 대표가 드림교회를 찾아 주일학교 4D프레임 활용을 직접 선보이고 있다. 美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세계적인 영재교육연구소와 교육 컨텐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모습.

오스트리아 사이언스네트워크재단과도 업무협약(MOU)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핀란드,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4D프레임 교구와 교육 컨텐츠를 그대로 수입해 자국의 교육정책에 접목시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과학관 등지에 상설체험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재센터 운영으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영재교육연구소와 교육 컨텐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인텔과 나사만 초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과학페스티벌에 포디랜드가 초청됐다. 이를 계기로 인접국인 카타르 등 전 아랍권에도 4D프레임이 상륙하기 시작했다.

양 대표는 아랍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 중국 및 일본 등 비크리스천 국가들에서의 4D프레임 열풍에 큰 의미를 둔다고 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4D프레임은 교회 주일학교 교재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주일학교 방학 캠프 등에서도 체험학습을 통한 전도용 교육 교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초, 바쁜 미국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를 찾아 직접 설명회를 갖은 것도 4D프레임이 시대적 선교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 소장과 양 대표는 4D프레임의 컨텐츠가 중국, 아프리카, 인도, 북한 등 전 세계를 향한 선교도구로 널리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쉼없이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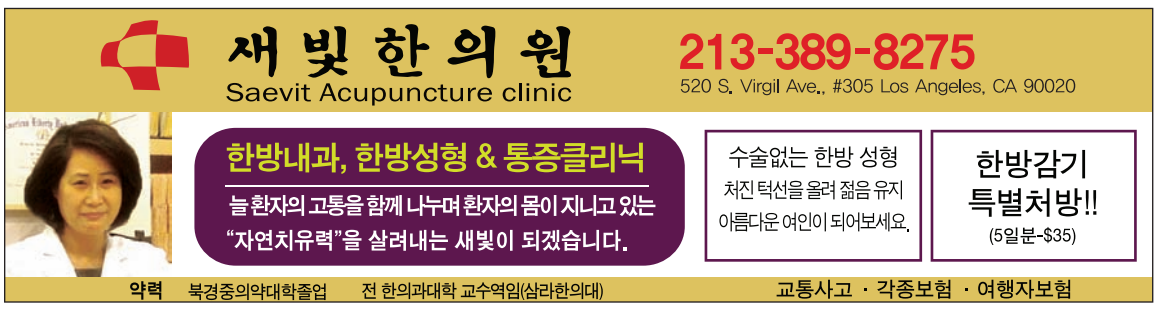
박 소장과 양 대표에게는 꿈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체 수리과학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구나"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비그리스도인들도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 꿈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 무주지역에 그 기초를 다지고 있다.

또 다른 꿈은 4D프레임처럼 창의적인 교육 컨텐츠를 적용하는 성경적인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밀알두레학교와의 업무협약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소원을 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지난해 기준 4D프레임은 전세계 16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를 향한 한류의 열풍 케이 팝(K-POP)처럼 세계를 향한 교육 한류열풍 케이 에듀(K-EDU)의 명성이 드높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를 고백하는 포디랜드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웹사이트: www.4dframe.com
*포디랜드LA
*주소: 3960 Wilshire Blvd.#303 LA, CA 90010
*문의: 213-248-4997

이영인 기자



교회미래연구소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美동성애 합법화 어떻게 진행돼 왔나"

교회미래연구소 '美동성애 합법화와 세계관' 주제 세미나 개최

교회미래연구소(소장 이호우 박사) 제21차 정기학술세미나가 9월 19일 아틀랜타밀알선교단(단장 최재휴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美동성애 합법화와 세계관'으로 양진영 목사가 나서 1967년부터 현재까지 美동성애 합법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풀어냈다.

양진영 목사는 "1967년 밀드레드 제터라는 흑인여성과 리처드 러빙이라는 백인남성의 결혼과 관련해 백인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던 버지니아 주와 오랜 소송이 있었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을 버지니아 주가 위배했다고 러빙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서 결혼의 핵심과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진영 목사는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Baker vs Nelson, 1971) △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Bowers vs Hardwick, 1986)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 할 수 있는가?(Romer vs Evans, 1996)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Baehr vs Mike, 199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Baker vs state, 1999)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Lawrence vs Texas, 2003)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Hillary Goodridge v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3)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Lewis vs Harries, 2006)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In reMarriage Cases, 2008) △연방 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United States vs Windsor, 2013)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Obergefell et. al. vs Hodges, 2015) 등의 논쟁을 거쳐 결국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목사는 "교회미래연구소가 건강한 보수 신학을 통해 목회와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교회미래연구소 주최 차기 모임은 '마르틴 루터의 〈오직 성경〉 사상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뉴욕교협 리틀넥 회관. 3층에 회원들의 교제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뉴욕교협, 회관 내 '휴식공간' 마련"

42회기 임원들, 임기 마무리 하며 소통 위한 기반 제공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 이하뉴욕교협) 제42회기 임원들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교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회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뉴욕교협은 회원교회들과 소속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대화할 수 있는 '차와 음악 만남의 장소'를 리틀넥 교협 회관 3층에 마련했으며 9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뉴욕교협은 회원들간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유니온 스트릿에 위치한 구회관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마땅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새롭게 이전한 리틀넥 새 회관에서 드디어 회원들의 친교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차와 음악 만남의 장소'은 휴게실과 카페의 기능을 하며 뉴욕교협을 방문한 회원들과 목회자들에게 편안한 대화와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간은 이곳 방문자들이 잔잔한 찬양 속에서 휴식하며 차와 간단한 다과를 겸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42회기 임원진들은 이 밖에도 차기 회기 임원들을 위한 교협 사업 매뉴얼을 마련해 보다 수월한 사업 인계를 돕도록 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뉴욕 기독일보]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엘림장애인선교회LA집회

한국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 LA선교집회가 열린다.

*일시: 10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LA사랑의띠선교회
*주소: 1300 W Olympic Blvd #200 LA, CA 90015
*문의: 213-736-6625

조동혁 박사 칼럼 3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의사의 하루

환자의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의사는 하루를 정신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다림에 지친 환자들은 의사가 마치 골프라도 치다 늦은 것처럼 화를 내는 경우를 흔히 본다. 많은 의사들이 필자와 별반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는 지난 9월 어느날, 필자의 실제 하루 일과이다.

어젯밤 10시에 환자차트를 열고 리뷰를 하던 중, 2일 전 피검사를 한 환자의 결과가 밤중에 도착했다. 신장이 안 좋은 그 환자는 고칼륨증이 심했다. 필자는 곧바로 환자에게 전화를 걸고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권유를 한다. 이 늦은 시간에 환자에게 응급연락을 할 때면, 그 환자가 왜 병원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 그리고 종종 환자와 실랑이도 하게 되는 등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그 환자는 필자를 신뢰하는 환자이기에, 간단한 설명에도 긴말 없이 병원에 가겠다고 한다. 그 환자는 밤 10시에 병원으로 향했고, 필자는 밤 12시에 응급실 의사가 그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전화를 받은 후에야 마지막 정리를 한 후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또다시 눈을 뜨고,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환자의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밤사이 새로 입원한 3명의 환자와 다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보다보니 밤새도록 입원한 위급한 환자가 많아 8시부터 시작하는 외래는 오늘도 20분이 늦었다. 9시쯤, 한 환자는 어젯밤부터 혼동이 왔다고 보호자가 전화가 와서 바로 앰블란스를 불러 응급실로 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예약없이 외래를 방문했다. 위급한 상황이기에 환자를 보니 심한 폐렴증상으로 인한 정신혼미/섬망상태가 의심되어 앰블란스를 불러 응급실로 호송하는 절차와 응급실 의사와의 전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45분의 시간을 써버리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혈압이 너무 높다는 등, 예약하지 않은 환자 5 명이 추가로 방문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병원로비는 시장바닥이 되면서 예약을 하고 온 환자 두 분이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인다. 좀 빨리 환자를 진료하려 하지만 오늘은 쉬운 환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하며 환자를 보고 있는 도중에 암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메세지가 온다. 며칠 전 필자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암전문의에게로 보내드렸던 환자가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판정이 나왔단다. 환자 앞에서 양해를 구하고 메세지를 확인하고는 다시 진료를 하려는데 좀전에 응급실로 보낸 환자때문에 응급실 의사가 통화를 요청한다. 다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끝내고 다시 진료를 시작한다.

다음 환자는 당뇨에 대해서 필자와 너무나도 다르게 치료를 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 환자다. 벌써 당뇨 때문에 의사 세 명을 봤는데 누가 더 잘하나 볼려고 나한테 와봤단다. 이리저리 의사들을 보러 다니면서 약은 다 타놨는데 약은 맘에 들 때만 가끔 드신단다. 물론 당뇨관리 수치는 엉망이다. 결국 이런 의사쇼핑을 하는 환자는 내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한명의 의사가 약을 더 처방해준들 무엇하리. 그 분께는 주치의한테 가셔서 그 분하고만 당뇨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끝까지 나한테도 "좋은 약" 한두 개를 처방해 달라면서 자리 뜰 생각을 안 하신다. 반복되는 실랑이를 겨우 뿌리치고 나와서 그 다음 환자를 본다.

이런 식으로 하루 외래를 오후 4시에 끝내고 투석센터를 향해 떠난다. 투석을 하는 환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그 환자의 눈이 돌아가더니 경련을 일으킨다. 또다른 응급상태로 환자를 뉘우고 안정시키느라 결국 30분의 계획없던 시간이 또 흘렀다. 다시 종합병원으로 향해 오후에 응급실로 실려온 나의 환자와 신장이 안 좋아 실려온 다른 환자들을 보고 나니 저녁 8시다. 레지던트 때부터 병원에서 30분안에 집에 오겠다고 하면 3시간이 넘어야 오는 것을 훤히 아는 아내는 전화가 없어도 오늘도 늦는 줄 이미 알고 있다.

집에와서 환자차트를 20여 개 리뷰 하고 밤 9시 반에 두부김치를 먹고 샤워를 하니 11시다. 그러고 보니 금요일까지 건강칼럼 써야 하는 것이 생각나 다시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다보니 12시 반이 넘는다. 오늘도 새벽 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는 힘들 것 같다.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건 가라앉질 않고, 아이스팩으로 머리를 눌러가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다.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를 위한 2016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 26:41)

10월 11일(화)~14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세상을 바꾸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역자에 달려 있습니다

강사

크리스 해리슨 목사 (내적치유 국제강사)

성현경 목사 (가스펠휄로쉽교회 뉴저지/맨하턴)

송주한 목사 (남가주 해오름교회, 전 키르키즈스탄 선교사)

장현철 목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등록 : 100불 (숙식 포함) 부부 150불
문의 : 604-535-1800, 703-624-7112
admin.ictc@gmail.com

Imita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 받는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J8 Canada

후원 : 기독일보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7:5-2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자기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기대와 욕구를 위하여 세운 꿈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 개꿈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전혀 원치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두고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 하시는 경우는 참으로 복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가꾸시는 목적이 그 사람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즉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 사람의 비전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은 그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엄마를 그렇게 총애했듯이 그가 낳아준 아들도 열한 번째 아들이었지만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37:3~4에서와 같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당히 불만거리가 되고 그 불만이 크면 클수록 요셉은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본문37:5~11에서 자신이 꾼 꿈들을 그의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욱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 요셉이 열일곱 살 때까지는 아버지 슬하에서 각별한 총애 속에 행복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어느날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형들에게 먹을 음식도 전달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창37:14)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으로 떠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다가옴을 모고 그를 해치고자 모의를 합니다. 오늘 그를 죽여 그의 채색옷에 그의 피를 묻혀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맏형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합니다.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다고 창세기 37:22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곳을 지나던 장사꾼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은 이십 개를 받고 요셉을 넘겨줍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임을 얻고 그 집의 모든 경영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요셉에게 지혜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39:2~3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39:7~10에서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으로 이겨나가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왕께 범죄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게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하고는 그 꿈들을 해몽하여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고 또 당신의 위치가 안전해 지거든 그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씀드려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옥살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바로왕이 꿈을 꾸게되고 그 꿈들을 그 나라 안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내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창41:1~7)

바로는 요셉을 불러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합니다.

창세기41:25~32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하고 말하고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를 청합니다.

이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한 말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창41:38~46)

사람의 꿈은 허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총애를 혼자 차지한다고 형들이 미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열입곱 살이나 먹은 사람이 자신의 꿈이야기를 자랑스레 하여 더욱 큰 미움을 산것은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내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의 끝 날까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두고 이루시고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꿈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서 거듭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생활로 안정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 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10월 2일(일) 라스베가스장로교회(조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임직예배 오후 5:00
10월 5일(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 수요 경건회 오전 11:00
10월 7일(금)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금요집회 오후 7:00
10월 8일(토)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토요집회 오후 7:00
10월 9일(일)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10월 17~20일(월~목)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 부흥사경회 오후 7:30분
10월 24~26일(월~수) 라스베가스 연합부흥회
10월 30일(일) 좋은소식교회(이호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오후1:30

남가주지역 목회자 초청세미나

일시 : 10월 17일(월) 오전 10:30
장소 :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후원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e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문의전화 : (213)739-0403, (213)718-1512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A. 이력서 (사진포함)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A. 보낼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LA 안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교회시설 Sublease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언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 문제는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를 찾아오곤 한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났다.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한 경험이 있다. 절망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힘들게 느껴졌던 문제들 때문에 더욱 잘 된 경우도 많았다.

한 때는 문제가 너무 싫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도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도피할수록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무시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을 경험했다. 지금은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려고 한다. 문제를 피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거인처럼 커 보이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노려보면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문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우리는 문제에게 압도를 당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노려보게 되면, 문제는 아주 작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필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문제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문제를 잘못 다루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문제를 적합한 때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보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 우리가 문제를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창 18:14).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 속에는 기적의 씨앗이 함께 담겨 있다. 문제 속에는 해결책의 씨앗이 함께 담겨 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문제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다.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노려보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도 배웠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를 친구처럼, 스승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지혜롭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를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이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살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긋난 기대, 어긋난 기쁨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자기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으로 학교는 항상 태풍주의보였고, 학교수업으로 부족하니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다시 등교하는 자녀들의 진풍경은 여전히 계속된다. 우리 집도 공부를 끝내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둘이고, 아직 공부하는 자녀가 둘이다. 일주일에 한 번 피아노레슨, 혹은 태권도는 잠시 보낸 적은 있어도 매일 방과 후 공부시키느라고 쫓아다녀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갖는 기대심은 때론 감사로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실망 내지는 체념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다.

쓰레기통 수거하는 날, 잔소리 안 해도 아침 일찍 밖으로 내놓는 아들을 볼 때는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또 저녁 식사 후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면, 알아서 설거지를 척척 하는 딸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얼마 전 휴가를 받아 동부에 다녀온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아빠에게 선물을 하나 사 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뿌듯함이 몰려왔다. 문제는 엄마 선물은 없었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아빠 선물을 보며 대리 만족을 해야 했다.

성경에 보면 147세의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을 뒤집어서 차남에게 우수를 장남에게 좌수를 얹어 엇갈린 축복을 한다. 아들 요셉이 바뀌었다고 말리지만, 할아버지 야곱은 엇갈린 손을 바꾸지 않고 축복기도 한다.

필자는 아들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 '엇갈림'에 대한 생각이 스쳤다. 자녀들은 늘 기대가 엇갈리는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투자한 만큼 받아내는 자판기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복권 당첨된 것처럼 세상 부러운 것 없는 축복으로 부모를 놀라게 하는 '엇갈림'의 주인공이 자녀들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엇갈림의 길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기대에서 완전히 어긋난 축복을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나는 나란한 두 직선이어야 했다. 예외도 없고, 원리원칙대로 인과응보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직선이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두 직선이 엇갈린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던 날, 지진과 함께 꺾인 두 직선이 엇갈린(crossed) 날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엇갈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오늘 어쩌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순수한 선물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천하를 다 얻은 양 좋아하실 것 같아 마냥 부끄러워지는 날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지난 여름, 사라는 시골 농장에 갔다가 거기서 월터와 사랑에 빠졌다. 그곳에서 만난 청년 월터는 민들레 화환을 만들어 사라의 갈색 머리위에 씌워주고 봄이 오면 결혼을 하자고 고백하였다. 사라는 맨하탄으로 돌아와서 이사를 했고, 식당의 타이피스트로 일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 월터가 민들레 화환을 만들어주면서 사라를 "왕비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주나 월터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민들레가 곁들여 있는 음식 메뉴를 타이핑하며 사라는 눈물을 흘렸다.

민들레가 피어나는 이 화창한 봄날에 눈물짓던 사라는 그날 저녁 뉴욕 싸구려 아파트에서 책을 읽으며 저녁을 지냈다. 그날 저녁의 정적은 두 세 칸씩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자국과 월터의 목소리로 깨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연락도 하지 않았느냐"는 사라의 질문에 월터는 "연락이 안 되어 당신을 계속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타이프한 메뉴를 꺼내었다. "민들레를 곁들인 계란 완숙" 대신에, 눈물 자국과 함께 "사랑하는 월터를 곁들인 계란 완숙"이라고 메뉴에는 오타가 나 있었다.

"메뉴 위의 봄"이라는 오 헨리의 단편이다. 여기 그려진 월터와 사라의 애틋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사랑받은 자의 즐거움, 죄 용서받은 자의 평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부요함,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불림 받는 사명감, 평생 함께하시는 주님의 지원 등, 이 모든 보람과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물들이다.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체험, 성령체험, 능력체험, 고난극복, 진리보수, 이단퇴치 등 너무 많은 은혜와 장점을 가진 교회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을 범한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가졌던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과 열심을 상실한 것이다. 밧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계 2:5).

이는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결정보다는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여야 하며, 그 문제에서 돌이켜, 처음의 그 견고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예수님은 차근차근 가르쳐주신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교회가 처한 열악한 환경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견지할 뿐 아니라 그 분과의 뜨겁고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사역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과 싸우다가 사탄의 증오와 무자비를 배워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는 것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남가주 한인 목사회

제50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남가주 한인 목사회 제50차 정기총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16년 11월2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윌셔크리스천교회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연락: 회장 엄규서 목사 (213.820.9414)
등록비:$20(필수)

입후보 제출 서류 마감 입후보자들은 제출 서류를 2016년 10월17일(월) 오후 6시까지 서기 김영구 목사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문의: 공천위원장 백지영 목사(323.708.9191)
서기 김영구 목사(310.404.6219)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자격
1)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한인목사회 3년 이상 봉사한 담임목회자(제3장 8조)
2)수석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 목회자(제3장 8조)

●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제3장 10조 3항)
1)이력서 2)교단소속증명서 3)안수증명서 4)최종학력증명서 5)교회 시무확인서
6)금월주보 7)30인 이상 회원 추천인 명단
8)입후보자 본회 발전기금(Cashier Check):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공천위원 및 모임
일시: 2016년 10월18일(화) 오후6시
장소: 로텍스호텔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1) 공천위원장: 백지영 목사
서기: 김영구 목사
2) 위원: 이운영 목사, 백지영 목사, 엄규서 목사, 김종용 목사, 송영일 목사, 최경일 목사

남가주 한인 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엄규서 목사 (213.820.9414)
서기: 백선용 목사 (213.550.8778)
E-mail: umkyusu@gmail.com, jk0612444@hotmail.com

남가주한인목사회 새라 김 사모 초청 세미나

'공립 학교의 문란한 성교육 실체와 대안책'

강사 새라 김 사모
TVNEXT 설립자 및 공동대표

현재, 성경적 가치관 보호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정을 갖고 TVNEXT 공동 대표로서 각종 강연과 함께, 정기적으로 KGBC (미주 복음 방송국)에서 "미국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기독교 언론사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통 크리스천 가치관 보호 단체중의 하나인 Christian Coalition CA 의 한인 대표로 섬겼으며, 미국의 선두에서 뛰고있는 Pro-Life, Pro-Family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가주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결혼, 부부 상담 및 심리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약력으로는, Cisco Systems 에서 13년 간 Global Management 및 비지네스 분야의 경영, 전략, 감사, 컨설팅 등의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으로는 20여년 동안 유년부, 청소년,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BA in Sociology (UC Davis), Masters in Program Management (Stanford University), Project Management (Georgia University)를 소지하였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이란?

일시 : 2016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바베큐 몽 (100 S. Western Ave. LA, CA 90004)
전화 : 213.388.7668
회비 : 없음 (점심무료제공)
문의 : 총무 최경일 목사 213.905.0380

주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후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JAMA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장학금 수여식

대상 신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가정의 자녀, 신학생, 탈북민
(각 교회 담임 목사 추천 요망)

일시 2016년 12월 4일 (주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김영구 목사 (310.404.6219)

2015년도 탈북민 장학금 수여식 사진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or 0 Down $169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or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75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예장통합 제101회 정기총회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총회장에 이성희 부총회장 추대

이성희 목사
예장통합 신임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1회 총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롬1:17, 레 19:2)' 주제 아래 9월 26일 오후 안산제일교회(담임 고훈 목사)에서 3박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총회는 개회예배로 시작됐다. 예배는 총회장 채영남 목사(광주본향교회 담임) 인도로 진행됐으며, 채 목사는 예배 전 "특별사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예배 설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레 19:2, 롬 1:17)'라는 제목으로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연동교회)가 설교했다.

그는 "제101회 총회는 우리 교단 총회의 새로운 세기의 첫 총회이고, 또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이런 역사적 시간은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고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그런 의미에서 제101회 총회는 새로운 시간으로 첫 걸음을 떼는 총회, 교회가 개혁되는 총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담임)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최기학 목사(상현교회 담임), 장로부총회장에는 손학중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기타 임원 명단은 서기 신정호 목사(전주노회), 부서기 김영걸 목사(포항남노회), 회록서기 정민량 목사(대전노회), 부회록서기 정해우 목사(서울노회), 회계 이용희 장로(평양남노회), 부회계 김미순 장로(제주노회) 등이다.

이대웅 기자

"예장통합 임원들, 이단사면선포 철회"

채영남 목사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

예장통합 이단 관련 특별사면에 대해 9월 21일 낮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월 12일에 행한 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를 철회 한다"고 전했다.

채영남 목사와 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총회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최근 총회의 관심사인 이단 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증경총회장들과 회동했다"고 말하고, "임원회는 교단을 염려하는 증경총회장들의 한결같은 권면을 적극 수용하여 결의한 바를 발표 한다"고 했다.

채 목사와 임원들은 "제101회 총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가운데 개최되고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여,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제시한 이단사면(해지)와 관련한 교단의 절차에 대한 해석과 교단을 염려하는 총대들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이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그동안 총회와 임원회에 대한 전국 교회와 총대들의 충정어린 조언에 감사드리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00주년 기념 총회목회매뉴얼' "가정목회발간감사예식"에 참석한 채영남 목사는 격려사를 전하면서 그동안의 힘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총회장직 마무리와 비행기 착륙을 동일한 예로 들며 "착륙하기 참 어렵다"면서 "매뉴얼이 없어서 착륙하기 어려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착륙하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이수민 기자

지난 9월 21일 '공명선거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한 (완쪽으로부터)조경열 · 전명구 · 이철 목사.

"기감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실시"

기감 차기 감독회장에 전명구 목사 당선

기독교대한감리회 차기 감독회장에 전명구 목사(중부연회, 인천대은교회 담임)가 당선됐다.

9월 27일 진행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전명구 목사는 2,587표를 획득해 감독회장에 선출됐다.

전명구 목사는 협성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독회장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개표 결과 전 목사가 감독회장에 확정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증을 전달했다.

총 6명이 출마한 가운데, 2위 기호 4번 이철 후보는 2,467표를 얻어 전 목사에 불과 120표(0.5%) 뒤져 당선이 좌절됐다. 이 외에는 조경열 후보가 1,937표, 허원배 후보가 564표, 권오현 후보 288표, 김영진 후보 247표 순이었다. 무효표는 40표였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에는 총 유권자 9,119명 중 총 8,1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89.15%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명구 목사는 "감리교인은 성경적 성결을 가슴에 품고, 소명과 가난의 삶을 미덕으로 알고 길 떠나는 떠돌이 설교자, 용기와 신념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음주의자"라며 "감리교회는 부흥을 위한 운동이었고, 성경적 성결에서 출발하여 사회 성화를 이루며, 이 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이끌고 부흥을 거듭하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회별 차기 감독들도 각각 선출했다.

이대웅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하나님께서 모든 피흘림 지켜보고 계신다"

아브디니 목사…뉴욕 UN 총회에 연설자로 나서

아브다니 목사
ⓒCNN뉴스영상 캡쳐

이란계 미국인인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가 9월 20일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흘림을 지켜보고 계시며, 희생자들의 울음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연설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연설에 따르면, 아브디니 목사는 "우리는 이란에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보았다"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년 반 동안 지속된 이란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이란 라자이 샤르 교도소에는 교도관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동료 수감자들을 한 명씩 처형했다"고 전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돼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으며,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처형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 정부를 향해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희생자들 편에 계신다. 그분은 모든 눈물과 피흘림을 목도하고 계신다. 어떠한 울음도 절대 잊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정의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 연설은 이번 주로 예정된 이란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 맞춰 진행됐으며, 이란 정부의 행위와 이란 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강혜진 기자

"예수님과 제자들, 결코 부유하지 않았다"

빌리 그래함 목사…번영복음 설교자들에 대한 의견 제시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빌리 그래함 목사가 "성경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번영복음 설교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9월 21일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웹사이트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유하길 바라시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실까요? TV에 나오는 성경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면서 "매달 들어가는 지출비로도 힘겹지만, 남편과 저는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연을 올렸다.

이에 대해 그래함 목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자체도 부자가 아니었다"면서 "결국 예수님은 부유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러했다. 전혀. 사실 정말 돈에 관심을 가졌던 유일한 제자가 유다였다. 그의 탐심과 불신앙이 결국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돈의 논예가 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한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분 대신 돈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누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복음 6:24)"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더 나은 부유함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적인 부유함으로 부자가 된다"면서 "잠깐 생각해보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크겠는가? 어떤 것이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보다 더 크겠는가? 어떤 것이 기도의 특권보다 더 귀하며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보다 귀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보다 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강혜진 기자

"워싱턴DC 한복판에 성경박물관?"

성경박물관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 조감도.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두블록, 연방의사당에서 세블록 떨어진 DC 한복판에 성경박물관(Museum of Bible)이 세워지고 있다. 내년 가을 오픈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박물관 건립이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으로 주일에 문을 닫는 대형공예품 회사인 하비라비(Hobby Lobby)의 데이빗 그린 회장에 의해 시작되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이에 대해 팀 스미스(Tim Smith) 성경박물관 개발(Development) 담당 부회장은 성경박물관의 목적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성경박물관 설립의 목적에 대해 "성경박물관은 성경을 해석하는(interpret) 곳이 아니다. 성경박물관은 성경에 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present) 곳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성경박물관에 초대해 성경에 접하도록(engage)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성경들을 보고 성경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도록 하는 역할(Bible Engager)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해석하는 일(Bible Interpreter)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스스로 결론내리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스미스 부회장은 성경박물관과 관련해 4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가 성경박물관이고 두 번째는 순회 성경 전시회라고 했다. 성경 수집품들을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전시하는 전시회는 이미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미국 주요 도시와 바티칸, 아르젠티나, 쿠바, 싱가폴, 자카르타 등 세계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성경 연구다. 로고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100여명의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아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네 번째는 성경 교육이다.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교과과정을 제작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

英성공회 예배모습.

"英성공회, 교인 3만7천명 이상 줄어·10년간 20%감소"

동성애와 동성결혼 수용하는 등 자유주의적 신학 노선과 관련

영국성공회가 지난해 약 3만7천명 이상의 교인이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성공회 연구사무소(Episcopal Church Office of Research)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영국성공회 교인수는 영국 내 약 181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약 177만 명으로 줄었다. 이는 10년 전 약 220만 명과 비교하면, 대략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수 역시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영국성공회 주일예배 참석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61만4천명 이었다. 이는 그 전해보다 약 2만명, 10년 전보다는 약 21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10년 만에 약 25.7%가 줄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와 더불어 연구를 진행한 제프리 왈튼(Jeffrey Walton)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떠나는 교인들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9년 간의 공식 임기를 마친 캐더린 제퍼츠 스코리 전 수좌주교 등 영국성공회 관계자들은 이같은 하락 추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교단을 탈퇴하는 교인들의 수는 대략 2만8천명의 기본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하락 요인 중 하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수용하는 등 교회의 자유주의적인 신학 노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성전환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

케빈 드영 목사…3가지 구성요소 소개

케빈 드영 목사 ⓒSNS

대학개혁교회 케빈 드영 목사가 더가스펠코얼리션(TGC) 블로그에 '성경은 성전환주의(transgenderism)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지평서원)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이 글에서 성전환주의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3가지 구성요소를 소개했다.

드영 목사는 "일각에서는 성경이 서양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성전환' 현상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성경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지 말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나 총기 폭력, 식욕부진, 워터보딩, 화석연료, 백신, 유전자조작식품, 포켓몬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구절 역시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성전환주의가 발생하는 근거를 이해하는데 있어, 성경이 어떤 가이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실, 성전환주의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장과 절이 아닌 성(gender)과 성적 성체성(sexual identity)에 대한 풍부하고 편만한 이해를 통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문화적 추세로서 성전환주의는 대단히 복잡하며, 유전, 패션, 약, 법, 교육, 엔터테인먼트, 운동, 종교자유 등과 전혀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모든 이슈들을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하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의 심리적 성 정체성을 느끼는 이들을 꾸준히 사랑하고 상담하고 친구가 되어줄 기독교인들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주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수 십개의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서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깨어지지 않는 말씀(요10:35)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 질문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는 어떤 것인가? 드영 목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성전환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론으로 이르게 하는 성경적 구성요소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1. 성 이분법 (Gender Binary)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분류도 나와있지 않다. 성경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 범주로 다루고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이미 성경의 많은 부분에 관련 기록이 있다는 추정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분류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창 1:27). 인류를 남성과 여성 두 범주로 나눈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새침한 여성들이나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2. 성 정체성 (Gender Identity)

성경을 존중하는 일부 사람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이 남성 또는 여성을 만드셨다는데 대해 동의한다.

많은 동시대의 학자들이 반대로 말하지만, 성경은 생물학적인 성(sex)과 성(gender) 정체성의 유기적 일치를 믿는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특별히 재생산이 가능한 쌍(pair)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창1:28, 2:20)이다. 또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성과 남성이 동침하는 동성애가 잘못된 이유(레18:22)이며, 바울 사도가 동성애적 관계는 남성-여성의 성적 결합의 자연스러운 관계나 기능에서 일탈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롬1:26~27)이다.

3. 성적 혼동(Gender Confusion)

세번째 구성요소는 자연스럽게 다른 2개 요소를 따른다. 만약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생물학적·창조적 차이를 거룩한 창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러한 실제들을 혼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성끼리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신22:5). 남성과 여성이 다른 성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포용할 때 이는 덕이 되지 않는다(고전11:14~15). 우리는 육체로 원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육체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전6:19~20).

드영 목사는 "이 글을 통해 이 3가지 구성요소들이 우리가 올바른 바탕을 제자리에 둘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진리와 은혜 위에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진정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EM주일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교육부 오전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아메리카 대륙 1등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단/풍/특/선

김태호 인솔자가 LA 부터 끝까지 모십니다.

같은 가격으로 동부 단풍과 캐나다 단풍을 즐기세요

미동부 캐나다 절정 단풍 6일

▶출발확정 10월 5일, 10월 8일 (항공/숙박/입장료 포함) $949

① 한인여행사 최초 뉴햄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미국 제 1의 단풍비경 〈캔카마구스 단풍로드〉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의 영원한 단풍의 노스탈지어를 꿈꾸다
③ 애디론덱, 주립공원과 협곡의 장관 !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세이블케즘〉 단풍 힐링 트레킹

화이트마운틴 곤돌라

캔카마구스 단풍로드

감성충만 퀘벡여행

계곡과 협곡의 장관 오세이블케즘

SOLD OUT 캐나다 단풍크루즈 9일 상품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화요일 라스베가스 숙박시 벨라지오 호텔숙박
✔ 한인 여행사 최초! 특급 벨라지오 숙박
✔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벨라지오 호텔 숙박

푸른만이 가능합니다 / 추가요금 없습니다!

[추천]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2박3일	▶매주화 출발	$299
[실속]	4대 캐년	3박4일	▶매주화 출발	$389
[실속]	미서부 일주	5박6일	▶매주화/토 출발	$599
[특별]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6박7일	▶매주화/토 출발	$689

오픈기념 이벤트!
*응모기간 : 10월14일까지 추첨일 : 1차8월 15일 2차9월 15일 3차10월 15일
(한국왕복항공권 8월 15일 1장, 9월 15일 1장 추첨하며 그 외 모든상품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시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1차 당첨자 : 최은순 님 경품 - 한국 왕복 항공권
2차 당첨자 : 지현희 님 경품 - 한국 왕복 항공권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

동유럽핵심과 지중해크루즈 10일 $2,999
▶ 프라하 2박 / 로마 1박 / 초호화 크루즈 4박 / 바르셀로나 1박 (미서부 출발기준) ▶10/22
천년의고도 체코 프라하, 세계문화유적의중심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의 피렌체, 세계적인 영화제의 깐느,
그레이스켈리의 모나코, 아름다운 프렌치리비에라
남프랑스 프로방스의낭만 마르세유, 가우디의 바르셀로나
초호화 NORWEGIAN CRUISE EPIC호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을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2017년 1월 14일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자네이로 20일 $4,299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2017년 1월 17일

크루즈 런칭 기념 PRINCESS CRUISE 특선
* BAJA MEXICO 5일 ▶11/27 $345
▶ 11/27 LOS ANGELES / SANTA BARBARA / ENSENADA (CROWN PRINCESS)
* MEXICO RIVIERA CRUISE 8일 ▶11/12, 12/10 $699
▶ LOS ANGELES / PUERTO VALLARTA / MAZATLAN / CABO SAN LUCAS (RUBY PRINCESS)

멕시코 / 캐러비안 크루즈
바하멕시코 4일 ▶매주 목,금 $299 부터
바하멕시코 5일 ▶매주 일,월 $299 부터
바하마 캐러비안 크루즈 5일/8일 ▶수시출발 $799
전세계 크루즈 ▶수시출발
▶ 파나마운하 / 남미(남극)크루즈 / 쿠바크루즈 / 하와이 남태평양 / 갈라파고스 / 알래스카 / 지중해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피요르드 / 그리스 혹해

*크루즈 상품은 출발일마다 계약시점에 따라 요금 변동 있습니다.

가이드+캠핑전문 쉐프와 함께
조슈아트리 캠핑 1박2일
❶ 내인생의 첫번째 사막여행
❷ 별사진, 별보기, 삼겹살 바비큐, 캠프파이어
❸ 책에서 만나던 사막노을, 사막여우, 사막토끼를 만나보세요.
$279
▶출발 :10/29

세도나
세도나 투어 /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3일 $249 ▶10/3 [특별출발]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후버댐, 윌리엄스, 오크크릭 세도나 벨락스, 몬테주마 웰
라스베가스/세도나/피닉스 4일 $399 ▶10/24
오크크릭캐년, 예술인의마을스코츠데일, 아리조나-미션 사구아로 국립공원

가을단풍 특선
미남부 대륙횡단 13박14일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쉐난도 국립공원 가을단풍
스모키마운틴 국립공원, 루비폴 관광, 남부군 3영웅 스톤 마운틴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 칼스배드 국립공원, 화이트샌드, 세도나, 라스베가스
▶10/20 [LA 출발] ▶11/4 [뉴욕출발] $2,399 (항공포함 가격)

서부 본부
그랜드서클 9대 캐년+세도나 7일
예술과 대자연의 만남 (세도나), 거대한 협곡 (그랜드캐년), 빛의 미술 (앤텔롭 캐년)
나바호 부족 성지 (모뉴멘트밸리), 바람이 빚어낸 신비의 (아치스캐년),
모든 캐년을 모아놓은듯한 (캐년랜즈), 붉은 첨탑들의 향연 (브라이스 캐년),
웅장함의 극치 (자이언캐년),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가스)
[출발확정] ▶10/27 $849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 매주 화, 토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목, 금,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숙박)	6일	$599
▶ 매주 화 토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디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동부 본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한번의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 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버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버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캐나다
Wow~ 천섬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다!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목 $1,399 $1,099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퀘벡(어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너리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방문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4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9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49	(항공포함)

한국
No팁! No옵션! No쇼핑!
단풍 절정 10일	▶10/20	$2,560
- 항공포함 / 전주, 해남, 외도, 경주, 영덕, 설악 등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강원3일	▶수	$1,549

퍼펙트 건강검진
녹십자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녹십자HS 멀티비타민 무.료.증.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올랜도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셜 등 에버글레이드 에어보트 ▶매주 화
올랜도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도/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유럽
시랑과 낭만이 가득한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발칸핵심 크로아티아 완전일주 + 슬로베니아 / 보스니아 10일
* 푸른투어만의 안전하고 알찬 발칸핵심투어!!
▶특별출발 : 11월5일 / 11월25일 $2,999
푸른투어 인증 안전 ★★★★★ 편의 ★★★★★ 식사 ★★★★★ 테마 ★★★★★
❶ 중세유럽 건축물과 쪽빛 아드리아해의 찬란한 조화, '크로아티아'
❷ 같은 유럽 다른느낌, '보스니아'
❸ 동유럽의 숨은 보석, ' 슬로베니아'
❹ 천상의 호수와 폭포, 플리트비체 호수

정통 서유럽 12일	▶수시출발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태리		
정통 동유럽 10일	▶수시출발	$2,999
동서유럽 20일	▶수시출발	$5,199
미니 서유럽 8일	▶수시출발	$2,899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수시출발	$3,099+항공
4성급 호텔숙박,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정 특식제공		
스페인/포르투갈 11일	▶수시출발	$3,199
그리스/터키 11일	▶10/3, 10/17	$3,099
이태리 일주 7일	▶수시출발	$2,799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랄리 온천욕 뽀아스화산/라빠스 폭포 등
4일 $850+항공 5일 $925+항공 6일 $1,090+항공

하와이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튼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멕시코 로스카보스 칸쿤
하얏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4일 $659+항공 5일 $800+항공 6일 $1000+항공
칸쿤 4일 $800+항공 5일 $950+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

사해(死海)…잔잔한 옥빛 물결의 염해(鹽海)

일반 바다보다 9.6배 높은 염분농도의 염해
사해 진흙으로 미이라를 만든 고대 이집트인들

◈잔잔한 옥빛 물결의 사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유다 광야와 모압 지방과 암몬 산지 사이에 길게 누워 있는 파란 바다를 사해(Dead Sea, 死海)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72년만 해도 사해는 물이 가득 차서 남쪽과 북쪽의 구별이 없었지만 오늘날의 사해는 물이 자꾸 줄어들어 남 사해와 북 사해로 나뉘고 말았다.

지금은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수로를 통하여 물을 내려보내고 있다. 남북 길이 49.71마일(80km) 북쪽만 하면 31마일(50km)이다. 동서 길이 9.3마일(15km) 해안선 길이 84마일(135km) 둘레 142.2마일(230km)되는 사해는 해표 면에서 -1,407피트(-429m)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바다이다.

또 표면적은 230스퀘어 마일(600km3)이고 평균 깊이가 653피트(199m)이다. 가장 깊은 곳은 997피트(304m)나 된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사해는 염분 함유량이 일반 바다 보다 9.6배 정도(34.2%) 더 높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죽은 바다 즉 사해(dead sea)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마 생물학적 용어인 것 같다.

사해는 히브리어로 המלח ים(Yamha-Melah) 즉, 소금 바다란 뜻이다. 사해란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보통 바다보다 높은 염분 때문에 물고기는 물론 프랑크톤도 살 수 없다 하여 B.C. 2세기 그리스 사람 '파우샤누스'가 처음으로 사해라 불렀다.

이후 로마의 박물학자들은 사해의 북쪽 해안에 가득한 진흙을 '아스팔트의 바다'라 불렀다.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금바다라고 자신의 책에 표기하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대인 요르단 지구대의 중간에 놓여 있는 사해는 구약에서는 '아라바 해'(신3:17; 왕하14:25), 동해(겔47:18; 욜2:20), 염해(창14:3; 신2:17)라고 불렀으며, 역청 골짜기(창14:10), 싯딤 골짜기(창14:10)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사해는 높은 염분뿐만 아니라 유황도 35퍼센트나 된다. 고대의 중요한 도시로는 염성(쿰란 추정) 엔게디, 마사다 요새, 말켈루스 요새, 소돔과 고모라, 소알 등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사해 동편에 아라드/ערד라는 현대 광야 도시가 있고 사해 해변에 '엔 보케'라는 해변 휴양 도시가 발달해 있다.

사해 남쪽으로는 사해를 원료로 하는 사해 공장이 엄청난 규모로 과거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지도에는 사해를 'ים המלח'(얌 하멜라흐;Yamha-Melah)'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소금바다 즉 염해(Salt Sea)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사해를 주로 염해라고 부른다. 사실 프랑크톤도 살 수 없다고 해서 지리적 또는 생물학적 용어로 기록된 사해가 이제는 사해가 아닌 생해(生海)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연 강우량이 50mm에서 100mm인 이 지역은 작열하는 태양별 아래 수분 증발이 연간 3m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한 형편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 해저 429m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특이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셈이다.

가장 높은 기후를 보이는 여름(7월)은 116도(F)/47도(C)가 되고 겨울(12월)에는 79.5도(F)/26.4도(C)로 연간 평균 100도(F)/40도(C) 이상이 되는 고온 건조한 곳이다.

그 옛날에 이 지역 5왕과 북쪽 엘람 지역의 4왕이 싸웠던 군사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데 염해 주변은 조용하기만 하다.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동원하여 조카 롯을 위해 싸웠던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다.

흔히 사해를 비유하기를 받기만 하고(요단강, 요르단 쪽 작은 강 몇 개) 내보내지 않아(입구는 있으나 출구는 없음) 물이 고이고 썩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갖춘 것처럼 사람들의 삶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사해같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사해는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일견 사해는 쓸모없는 바다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특이한 지형 때문에 바닷물이 소금물이 되었고 물에 함유된 광물질을 이용한 비료, 화학약품, 화장품, 진흙 팩을 생산하는 생(生) 바다가 되었다.

사해는 이제 바다를 이용한 관광산업도 이스라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었다.

사해는 건선(무좀, 습진) 등 피부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일광욕을 통하여 자외선을 쪼이면 된다) 공기함유량도 일반 지역보다 4.8%이상 높기 때문에 부비 동염, 기관지, 천식 환자들에게도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사해 물을 식염수로 사용한다).

또한 진흙을 이용한 관절염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해의 진흙을 이용하여 미이라를 만들었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사해를 아스팔트의 호수라 부르기도 하였다.

사해 서남쪽에 엔 보케라는 휴양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유명 호텔들이 밀집되어있다. 이 곳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 되었다.

이제는 비유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나름대로의 특질과 사용가치가 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용 소금과 치료용 소금을 공급했고 현대에는 휴양과 치료의 기회를 주는 사해는 더 이상 죽은 바다라 부르지 않는다. 성경대로 염해라 부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내 산 오르느라 쌓인 피로와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염해에서 씻어내길 바란다.

염해에서는 깊은 사색이 필요하다. 염해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기억하며 그냥 지나치지 말았으면 한다.

옥빛 물결의 염해는 또 다른 자연의 신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더군다나 염해 주변에서 많은 구약사본들이 1947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발견된 구약사본을 사해사본이라 한다.

생명의 말씀을 2000년간이나 보관했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염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믿는 자에게는 다시 없는 귀한 장소인 것이다.

이제 설명은 뒤로 하고 수영복을 갈아입자. 평생 한번 경험하는 진기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해이다.

그렇다고 사해에 풍덩 잠수해서도 물장난해서도 안 된다. 높은 염분 함유량 때문에 눈, 귀 ,입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해 언저리의 낮은 곳에서 뒤로 살짝 누워 주기만 하면 된다.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누우면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이 넘는 사람도 둥둥 뜨게 되어 있다.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깊어도 가슴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진흙 팩을 온몸에 하고 일광욕하는 즐거움도 누려보기 바란다.

또한 사해에 들어가기 전에 일행을 잘 확인해둬야 한다는 농담이 있다. 사해에 들어갔다 나오면 30년은 젊어지기 때문에 일행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란다. 그 만큼 건강에 좋다는 얘기이다.

신기한 바다 사해에서의 추억은 일생 큰 즐거운 기억 중 하나로 남는다. 수영 못한다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라. 물에 누워 신문도 한번 읽어보고 피부소독도 해보라.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주님의 위로와 선물이 될 것이다. 사해에 들어갔다 나와 30년이나 젊어져서 늦게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자.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3nd St. Oxford Ave.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 정연호 칼럼

유대인과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4)

정 연 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구약학(유대학)

리차드 써든(Richard W. Southern)이 자신의 책 〈중세의 서구사회와 교회(Western Society and Church in the Middle Ages)〉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중세의 교회와 사회는 하나였고 중세의 교회 역사와 세속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이 시기의 근본적인 교회 정책은 유대인의 삶을 추락시키고 유대인들을 기독교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크리스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유대교는 악의 그림자로 조롱을 받고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교회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먹고 자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신학적 렌즈로 유대인들을 바라보았고, 따라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죄인으로, 짐승으로, 악의 모델로 보았던 것이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교활한 장사꾼들 내지 고리대금업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세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등장인물인 샤일록은 모든 유대인이 고리대금업자이며 악한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탄의 삼위일체: 악마, 적그리스도, 유대인

중세교회는 유대인과 관련하여 사탄의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악마, 적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반유대적 선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신화에 나오는 악마와 동일시하게끔 했다. 폭력적이고 미신적인 중세시대 교회의 반유대적 가르침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학대와 살인을 부추킨 것이다.

그 결과 중세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는 악마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잠재된 분노가 있었고 주기적으로 공격성향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악한 유대인과 관계하지 말라

유대인의 본질이 악이며 사탄이라고 본 중세시대 교회는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했다. 악하고 더러운 유대인들이 거룩한 기독교인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엑스터(Exeter)회의는 1287년에 기독교 여인이 유대교의 가정에서 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악(유대인)과 관계하면 선(기독교인)이 악에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황 베네딕트 12세는 1338년에 유대교로부터 개종했지만, 유대교의 관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종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유대인이 과거의 잘못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하는 것이 짐승과 관계를 하는 수간으로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과 성관계하는 것은 마치 돼지와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다."

◈천년왕국적이고 거룩한 유럽 사회의 '공공의 적'

중세교회의 반유대적인 입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는 천년왕국적인 기독교의 믿음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천년왕국으로서의 유럽왕국을 성결케 하기 위해 기독교의 울타리에서 악(유대인)을 제거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제거하는 방법은 악(유대인)을 선으로 바꾸거나-즉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거나-추방하거나 멸절하는 것이었다.

"나는 유대인들과만 관계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가장 큰 돼지이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성직자들은 반유대주의적인 설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유대적 미신을 믿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폭력을 부추겼다.

사실 반유대적 미신은 이미 교부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존 크리소스톰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자녀들을 죽여 저주받은 마귀들을 섬기기 위한 피의 제의를 행했다고 했다.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인 자(deicide)라는 죄목에 악마와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란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에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반유대적 선동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효과적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유시민으로서 어떤 천부의 권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교황과 기독교 통치자들의 아량에 의존해서 살았다. 그 아량은 오직 유대인의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되었다. 만일 통치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사용가치와 효용성이 줄어들게 되면 유대인들의 삶과 소유물들 또한 박탈당했고 추방되었다.

12세기 위대한 영적 위인인 클레르보(Bernard Clairvau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하고 심각한 노예는 없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노예의 신분을 지고 간다. 어디에 가든 그들은 주인을 만난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 교회법 24조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라테란 공의회법 24조는 "...누구든지 기독교인보다 유대인을 편드는 자는 파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13세기의 도미니칸 수도회의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유대인들은 교회의 종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교회의 식민이다. 교회는 세속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 유대인들은 왕과 제후들의 노예이다."

• 김병태 칼럼

횃김에 불 지른 사람과 그 불 속으로 뛰어든 청년

김 병 태 목사
성천교회

방송 성우가 되는 게 꿈인 한 청년이 있다.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한 20여 명의 생명을 건진 의인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한 마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달아나세요. 불이 났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20명의 목숨을 건졌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안치범 씨이다.

그는 21개의 원룸이 있는 5층 건물 4층에서 살고 있다. 지난 9월 9일 새벽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불을 피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일단 119에 신고를 먼저 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망설이더니 웬일인지 곧바로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디시 뛰어 들어갔다.

그는 정신없이 1층부터 5층까지 전 층 21개의 룸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다. 불이 났으니 빨리 달아나라고 고함을 질렀다. 깊은 잠에 빠진 주민들을 깨워 도피시킨 후, 그는 옥상 입구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다. 유독가스에 질식된 게다.

소방관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의식불명 11일 만에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생명과 안전을 먼저 확보하려 하지만, 그는 남의 생명과 남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의로운 죽음을 당했다.

본인은 그렇다 손 치고, 생떼 같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들 맞냐고.... 우리 아들이 맞긴 맞는데 아니라고 하고 싶더라고..."

아버지보다야 어머니의 가슴이 더 찢어지지 않겠는가? "어느 엄마나 다 마찬가지지만 소중한 아들이니까 원망스러웠죠. 나는 말리고 싶은데 내가 말려도 또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쓰러지는 순간에 잘했다고 칭찬해 줘서.... 자랑스럽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회에 경종을 울린 아름답고 가치있는 죽음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의 충격은 지금도 가시지 않는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은 수백 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을 가라앉는 배 속에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살자고 도망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청년은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다. 불길 속에 휩싸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의로운 분이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저주의 죽음을.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그러나 그 죽음은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었다. 세상을 살리는 죽음이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죽음이다. 죄인들을 대신해 죽은 그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20명의 사람들을 살린 청년에게도 필요한 예수님의 죽음이다. 사람들이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청년의 죽음도 인간의 죄를 없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의 씨앗인 죄를 없애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에게조차도 반드시 필요하다.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원인은 방화이다. 건물에 불을 낸 범인은 20대 남성이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 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악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다.

살다 보면 분노의 감정에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러나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하는 법이다. 참음이 없이는 휘청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저지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무런 죄가 없이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금번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6대 정관개정추진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기독교 언론과 목회자, 장로님,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바로 된 정관으로
교계의 연합을 도모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교회협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정관개정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 계 : 여호수아 지 목사
• 교계대표 : 김관진 목사
• 언론 크리스찬 투데이 : 서인실 국장
• 교단대표 : 이상훈 목사
• 여성대표 : 백지영 목사
• 장 로 대 표 : 김성전 장로
• 평신도 대표 : 이재영 집사
• 자문위원장 : 이정근 목사
• 자 문 위 원 : 김찬희 교수, 한기형 목사
박종대 목사, 민종기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

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로텍스 호텔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정관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 정해진 목사, 서기 : 김영구 목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모두가 알아야 할 성경적 종말론

정기화 | 생명의말씀사 | 413쪽

'개혁주의 종말론 핵심 키워드 29'라는 부제처럼, 죽음부터 적그리스도와 대환난, 아마겟돈,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과 영생 복락까지 종말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골랐다. 책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쓸데 없이 마음의 여유를 부리거나 종말론을 마냥 외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종말론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성도라면 누구나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감사

황성주 | 규장 | 216쪽

감사란 무엇일까? 저자는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전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고,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

민찬기 | 쿰란 | 352쪽

10년 넘게 잠언서로 강해설교를 하고 있는 저자가, 자료 빈곤으로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펴낸 강해집이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잠언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 대상이다. 한 절마다 주석과 단어 연구를 했다. 또한 한 장당 설교를 서너 편씩 넣어 가면서 독자들로하여금 잠언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번 책에서는 잠언 1~4장을 다루고 있다.

듣고 행하라 하신 산상수훈

정성진 | 예영 | 200쪽

저자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꼽지만, 목회를 시작한 후 17년 동안 연속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너무 귀한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 오랜 망설임 끝에 '기도와 심호흡' 후 시작한 강해설교로, 그만큼 오랜 고심의 흔적이 담겼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함을 강조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이단 대처, 분리와 정죄가 아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교회. 이단 대처는 분리와 정죄가 아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해야 한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행한 사람이 알고 보니 목회자였거나, 알고 보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소식들을 우린 뉴스를 통해서도 공공연하게 접한다.

한국 교회는 많은 오류와 변형들로 아픈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단 대처의 명분과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단을 비판하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던 교회는 오히려 이단에게 비판 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이단은 잘못된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단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는 무조건 정통'이라는 명분만으로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르는 척 눈감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 전문가 탁지일 교수는 교회를 향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오히려 고맙다.

한국 교회에 개혁은 절박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교회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의 신간 〈교회와 이단〉에서는 사회와 이단이 교회에 던지는 설득력 있는 질문에 눈을 열어 직시하며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과 변형된 정체성을 지적한다.

교회와 이단
탁지일
두란노 | 212쪽

비록 어제는 과오로 얼룩졌을지 몰라도, 문제와 비판에 직시하는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오늘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몫이다. 이단 문제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준비된 교회만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교회는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단은 그 규모가 커지고 생활의 침투면에서도 깊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교회의 이미지에 반해 이단은 봉사 등의 사회 활동을 펼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무작정 '이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크기와 깊이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에 탁지일 교수는 준비된 교회가 이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이단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추적하고 분석해 왔다. 더 이상의 이단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단의 실체를 면밀히 서술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나 정죄가 아닌 온전한 치유와 회복임을 전한다.

이단의 문제가 또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이때. 공신력 있는 이단의 정보를 내놓고, 교회와 가족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복음과 진리로 대처하는 탁지일 교수의 현실적인 해답에 귀를 기울이자.

지은이 탁지일은 이단 전문가로 누구보다도 간절히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도들이 거짓 복음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영인 기자

[인문 고전 읽기]

"평민의 예술론을 펼치다"

예술은 모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순수 예술이어야 한다

빈센트 반 고흐는 친구 안톤 반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1884년 3월)에서 "예술은 우리의 기술, 지식, 교육보다 더 위대하고 고차원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단지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네. 더 깊은 원천에서, 바로 사람의 영혼에서 솟아나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철학자 말틴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 작품은 일차적으로 사물이다. 조각은 돌로, 목각은 나무로, 회화는 색채로, 음악은 음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 작품은 제작된 사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물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작품은 비유이다. 작품은 심볼이다." 그에 의하면 예술의 본질은 사물적인 것을 넘어서는 심볼과 비유다. 그는 "예술은 진리를 작품 가운데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이란무엇인가(1898)〉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1828~1910)가 쓴 예술론이다.

그 기본적 명제에 관해서는 훨씬 이전부터 일기나 그 밖의 자료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1899년에 한 화가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쓰지 않고는 못 배긴다.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나 나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당시 이 논문을 쓰고 있던 자기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그는 새로운 신앙에서 살기 위해, 그때까지의 자기 예술 활동을 포함하여, 단호하게 거짓 예술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새로운 자기 예술관을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전개했다.

톨스토이는 초반부에 당시 여러 나라 학자들의 미와 예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들의 이론은 미를 정의하는 데 있어 여전히

예술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
범우사 | 266쪽

애매함과 모호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예술이 쾌락의 수단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그 예술적 인상을 받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교류 수단으로 보았다.

톨스토이는 감정의 감염을 중시하는데 감염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훌륭한 예술이라고 했다.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현대 예술은 모두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사람의 지적인 의식을 감정으로 옮기는 인간 생활의 한 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는 과거의 모든 미학자 학설을 분석하면서, 문학을 비롯한 음악·회화·연극과 예술의 모든 장르에 걸쳐 언급했으며, 자기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음악·회화 등 거의 모든 예술의 90%는 상류계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그 세련성이나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들의 사랑과 정욕과 생의 권태라고 하는 테마에 국한돼 있다. 톨스토이는 현대 상류계급 사람들이 예술의 모조품을 진정한 예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그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 있어 위험하며 무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예술은 보편적인 예술, 즉 모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 종교적인 감정을 전하는 성실하고 순수한 예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해리엇 비처 스토 부인이 쓴 〈엉클 톰스 캐빈〉을 뛰어난 소설이라고 찬양하는 한편, 셰익스피어나 보들레르를 비난하고 바그너의 가극을 공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톨스토이 나름대로 자기 신념에 충실코자 하려는 데서 저지른 잘못도 많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그것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쓴 작가의 말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진실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로맹 롤랑도 "톨스토이는 그가 당연히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 입센과 베토벤을 중상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 그것은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반성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격분의 죄이고 그 이유의 연약함을 놓친 편견의 죄이며, 감히 말하자면 그의 예술에 관한 교양이 불완전한 죄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톨스토이는 이 논문 집필을 맞아 너무나도 그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때때로 지나치게 독단적 진술을 하고 있다. 더구나 그 경우도 톨스토이의 견해는 대상 그 자체를 말하고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보다 많이 말하고 있다.

어쨌든 톨스토이가 이 예술론에서 전개한 사상은, '전향' 뒤 그의 세계관을 매우 명쾌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큰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을 읽은 화가 일리야 레핀(Ilya Repin)은 "이 박력 있는 걸작의 강렬한 인상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점이나 몇 가지 예에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로서 문제를 제출한 본 줄거리는 깊고 반박의 여지가 없기에, 즐거운 기분이 되기조차 합니다"라고 톨스토이에게 써 보내 그를 기쁘게 했다고 전해진다.

한때 구 소련에서는 톨스토이의 만년의 전향에 관해 심한 비판을 했지만, 그의 예술론에 흐르고 있는 교화적 경향을 암암리에 지지하면서 서구의 예술적 퇴폐를 공격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있는 점이다.

톨스토이의 예술론은 예술의 정의와 범주를 너무 무겁게 그리고 너무 좁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경청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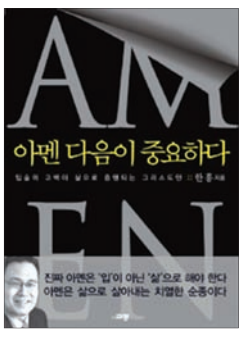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스리뷰]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
규장 | 272쪽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 아마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이 '아멘'일 것이다.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은혜로운 글이나 영상의 댓글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다 기억하지도 못할 그 숱한 아멘만큼 우리의 삶도 '아멘'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자 설교자로서 자신의 삶과 성도의 삶을 반추한다.

왜 그리스도인의 이혼율, 자살율은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예비 며느리들의 혼수 문제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권사님들이 이리도 많은가. 주일 설교에 아멘한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제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구부러진 총신에 들어간 총알이 과녁을 맞출 수 없듯이, 구부러진 마음의 틀과 영적인 태도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영과 혼과 육의 삶에서 잘못 두어진 부분을 체크하면서 인생의 시즌에 합당한 새로운 영적 태도를 가지기를 권면한다. 아멘이 단순한 형식적 단어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한 순종이며 헌신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은혜를 실천하는 아멘의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마음의 틀, 영혼의 태도를 확실히 개조하고 가야 한다. 단순히 종교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롭게 포맷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태도가 새롭게 바뀔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영인 기자

"과학과 성경의 관계 이해"

과학과 성경의 통합 가능을 다각도에서 조명

과학과 성경의 대화
버나드 램
IVP | 456쪽

이 책은 과학과 성경의 통합에 대한 버나드 램의 통찰과 연구가 집약된 결과물로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4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기독교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서는 과학과 성경 둘 다를 존중하면서 양자의 조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2장 "신학과 과학의 충돌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학자와 과학자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에 대해 고찰한다. 3장 "기독교와 과학의 근본 문제들"은 성경의 언어 및 자연관을 밝힌다. 성경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과 자연 이해를 이해하고 논의가 진행될 때라야, 쓸데없는 오해와 편견이 제거될 수 있다. 4장 "성경에 예기된 과학적 사실"에서는 현대 과학의 비밀을 알려 주는 듯한 성구 해설들이 실은 근거가 부실함을 밝힌다. 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5~8장은 성경 자료와 여러 과학 분야의 관계를 상세하게 보여 주는 데 집중한다.

이 책은 기독교 과학철학 정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성경와 과학 각 분야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과학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계와 과학계의 거시적 대화를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인 기자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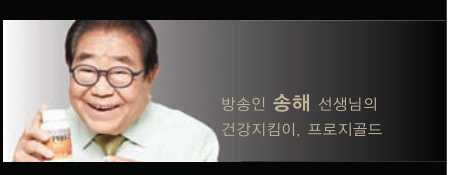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September 29, 2016 Vol. 70

Korean American pastors gathered in Cerritos Mission Church on September 11 for a 'Crisis Management Seminar,' with Dave Carder and Benjamin Shin as the main speakers.

Korean American Pastors Glean Advice on Preventing, Reporting Abuse Situations in Ministry

BY RACHAEL LEE

About 50 Korean American pastors gathered at Cerritos Mission Church earlier this month for a 'Crisis Management Seminar' hosted by Dr. Benjamin Shin, th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Doctor of Ministry cohort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The seminar was split into two parts, the first which featured Dave Carder, a counselor who has dealt with hundreds of cases of extra-marital affairs, sexual abuse, and other related incidents. Shin spoke during the second portion, sharing updates on an incident that occurred in July in a mission team sent by the college ministry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an incident which Shin said triggered this seminar.

"We wanted to provide this time to provide resources for Korean American pastors, especially since they don't go over this in most seminaries," said Shin, who shared a list of counselors, lawyers, and police officers who could help in similar situations.

For many involved in the KCM incident, which involved allegations that a pastor engaged in inappropriate conduct during the mission trip, this was their first such experience dealing with moral failure among ministry leaders. For Shin, who helped KCM's leaders throughout the handling of the incident, it was his seventh time.

One of the things Shin said he learned from Carder, and from his own experiences, is that it's best to "go public" about these incidents rather than hiding them, and to act quickly. When KCM's director, Pastor Richard Kim of Gospel Life Mission Church, was first informed of the allegations, the pastor who headed the mission team was immediately removed from the mission field and Kim was sent in his place. KCM also issued a public statement on its website. Once the pastor admitted to the allegations, he was immediately terminated from his position in KCM and his local church.

Shin also said he and KCM focused on ensuring the recovery of all of those affected by the incident – the students, parents, and the pastor. The students, who chose to remain in the mission field, had their own debriefing session upon their return with parents, KCM staff, counselors, police officers, and other pastors, and are currently being matched with long-term counselors. KCM is also undergoing a process of completely overhauling its staff, and will have more stringent policies in recruiting, Shin said.

Carder shared in detail the circumstances for reporting similar instances or instances of sexual abuse, and said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mandates reporting for cases with reasonable suspicions," which could include any situation in which "any normal person might suspect" abuse. Some examples of symptoms of abuse include frequently being late or absent from school, having knowledge of sexual facts or terms beyond the child's age appropriateness, fear of being alone with men or boys, and eating disorders, among others.

"The government wants you to err on the side of reporting," Carder said, and emphasized that mandated reporters are protected by law to ensure their safety.

"What if someone else approaches me and tells me that they have a 'hunch' that someone might be facing abuse?" asked one attendee.

"Invite them to tell you more," Carder responded, "but you are only mandated to report if you are the one who is suspecting abuse."

Carder warned the pastors against "trying to investigate" a situation on their own.

"After you have reported, you have satisfied your legal demands," said Carder. "The more you find out by investigating on your own, the more liable you are if you do not disclose that information."

He also offered some guidelines to the pastors to avoid falling into such situations, such as never being alone with minors in a room or in a car, and avoiding touch, such as tickling or back rubs.

"Be smart, don't put yourself at risk," Carder said.

Meanwhile, Shin and KCM leaders have started a 'Faith Hope Love Fund' to offer financial assistance to the students affected by the KCM incident this past summer who may want to seek counseling but cannot afford to do s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contributing could write checks to KCM, with 'FHL' written on the memo line. Contributions can be mailed to Cerritos Mission Church at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The annual worship choir concert hosted by KCMASC took place at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Unite in Worship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Korean churches gathered to worship together at the 35th annual Southern California worship choir concert on September 25 at 7 PM at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Thanksgiving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ECO, and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were among seven churches and organizations who participated in this year's event, hosted by the Korean Church Music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KCMASC).

"I pray that as God blesses those who, in faith, have given God an offering of praise, that he will lead us to give him an even more pure and sincere worship," said Won Jae Kim, the president of the KCMASC.

Founder of Oriental Mission Church Rev. Dong Sun Lim Passes Away at 93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Reverend Dong Sun Lim, a long-time pastor 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in the U.S., passed away at the age of 93 on September 24 at 9:06 PM.

Lim, who had been serving as pastor emeritus at Oriental Mission Church (OMC), showed signs of pneumonia after returning from a 10-day mission trip to four countries in South America with OMC's senior pastor Jim-Bob Park. Lim passed away while he was hospitalized after his return.

As he was known to have said often, Lim said prior to leaving on this last mission trip that he "is striving to visit 100 countries for missions," and that he would participate in missions "until the day the Lord calls [him]." Just like he had said, he poured his energy into mission work until the day he departed from this earth.

Reverend Dong Sun Lim, founder of Oriental Mission Church.

Lim, who was born in 1923 in Gyeonggi-Do, studied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oongsil University,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an Antonio U.S. Air Force Chaplaincy School, an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mong others. In 1970, Lim founded Oriental Mission Church in Los Angeles, leading it to becom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region. He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and as the president of World Mission University.

Plans for his funeral service have not yet been announced.

Korean American Advocacy Groups Spread Awareness of Voting and Citizenship in Immigrant Communities Ahead of Elections

Korean American non-profits in multiple parts of the nation have hosted and will continue to host awareness events and drives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and citizenship applications in the weeks and months leading up to the election.

In Southern California, the Korean Resource Center (KRC), based in Los Angeles, joined 14 organizations in hosting the Pan Asian Citizenship Event on September 17, to provide services to the Asian immigrant community members in their respective languages, including Korean, Mandarin, Cantonese, and Vietnamese, among others.

Ten Korean and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have joined hands to host voter registration drives in multiple parts of Los Angeles on 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 (September 27).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the San Fernando Valley Korean American Association, the Korean American Democratic Committee, the Korean American Republican Committee, and the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among others, hosted booths from 12 PM to 5 PM in various markets in Los Angeles.

Meanwhile, Korean American non-profits in other states have also held volunteer trainings, citizenship application workshops, and voter registration drives, including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in Virginia and the Korean Resource and Cultural Center (KRCC) in Illinois.

"Leading up to Citizenship Day we have assisted hundreds of eligible community members with their naturalization applications and lifted up their stories of success, as well as the stories of those who will soon naturalize and those who currently have no path to American citizenship but are instilled with the American values of family and strive to be fully contributing members of this country and in their communities," Dae Joong Yoon, the executive director of NAKASEC, Inhe Choi, the executive director of KRCC, and Joon Bang, the Los Angeles Director of KRC said in a joint statement.

"We remain committed to reclaiming the narrative defining an American and continuing to help our hardworking community members apply for citizenship, register to vote, and win immigration reform that provides a fair pathway to citizenship and embraces family unity," the statement adds.

KRCC hosted voter registration outreach events at Northwestern University and at a Korean Festival hosted by Joyful Presbyterian Community Church, while NAKASEC held volunteer training events in Annandale ahead of their upcoming voter registration drives in Octobe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Asian Pacific Islander Health Data Disaggregation Bill Signed into Law

BY RACHAEL LEE

A bill that requires California'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o record the data separately for each Asian and Pacific Islander group was signed into law by Governor Jerry Brown on Sunday.

Current state law already requires certain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to collect data separately for each specific group among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when conducting decennial census reports. This bill, AB 1726, would include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in that existing law. Advocates who have been pushing for this legislation have said that the law would help to close disparities in health needs among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We celebrate this milestone in our community's history to uncover long-neglected health disparities and develop targeted solutions. This new policy will provide California'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with more granular data on the diverse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and Pacific Islander (AANHPI) populations it serves," said a joint statement from multiple Asian American groups, including the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the California Pan-Ethnic Health Network, Empowering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and the Southeast Asia Resource Action Center.

"Better data on the different needs of our communities translates to more effective public health strategies that save lives," the statement continues.

California State Assemblymember Rob Bonta, who introduced the bill, said that breaking down the data regarding the health needs of each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will give us a clearer pathway to formulate policy focused on positive outcomes for our specific API communities."

However, some opposed the bill, arguing that the bill only requires disaggregated data for the API community, and not others.

"I disagree with the way we finely divide the Asian community into specific subcategories when we don't do the same thing to the other ethnic groups," Silicon Valley Chinese Association committee member Lily Ding told NBC News.

Under the new law,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would be required to disaggregate the data for the API community when collecting data on the rates for major diseases, leading causes of death, pregnancy rates, and others. The law will take effect on July 1, 2022.

Donald Trump and Hillary Clinton Speak on Economy, Race Relations, and National Security

The first of the presidential debates between Republican nominee Donald Trump and Democratic nominee Hillary Clinton was held at Hofstra University in Hempstead, NY, on September 26.

The debate was moderated by NBC Nightly News anchor Lester Holt, and was divided into six segments of about 15 minutes each, where the participants were given 2 minutes to elicit their response to the prompts and questions, after which they could respond to each other. The three main areas of debate related to economy, race relations, and security. Clinton and Trump were divided on how to approach each of these national concerns, and expressed their points of view on what they propose to do once they are elected.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faced off during the first presidential debate on September 26. (Photo: Marc Nozell (left) and Gage Skidmore (right) / CC)

To solve the problem of jobs, Clinton suggeste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renewable energy, and small businesses, and raising minimum wage and taxes, among other measures.

"I want us to invest in you. I want us to invest in your future. That means jobs in infrastructure, in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clean, renewable energy, and small business, because most of the new jobs will come from small business. We also have to make the economy fairer. That starts with raising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also guarantee, finally, equal pay for women's work," Clinton said.

"I also want to see more companies do profit-sharing. If you help create the profits, you should be able to share in them, not just the executives at the top," she added.

Trump emphasized the need to prevent jobs from leaving the country, and boosting the businesses at all levels by reducing taxes, so that companies have incentives to expand and produce more jobs.

"Our jobs are fleeing the country. They're going to Mexico. They're going to many other countries. You look at what China is doing to our country in terms of making our product. They're devaluing their currency, and there's nobody in our government to fight them. And we have a very good fight. And we have a winning fight. Because they're using our country as a piggy bank to rebuild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are doing the same thing," he said. "Under my plan, I'll be reducing taxes tremendously, from 35 percent to 15 percent for companies, small and big businesses. That's going to be a job creator like we haven't seen since Ronald Reagan. It's going to be a beautiful thing to watch."

On the issue of race relations in the country, Clinton said that authorities have to work towards building trust between the communities and the police, while referring to the recent shootings of Terence Crutcher and Keith Scott.

"The gun epidemic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of young African American men, more than the next nine causes put together. So we have to do two things, as I said. We have to restore trust. We have to work with the police. We have to make sure they respect the communities and the communities respect them. And we have to tackle the plague of gun violence, which is a big contributor to a lot of the problems that we're seeing today," said Clinton.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have our inner cities, African Americans, Hispanics are living in hell because it's so dangerous. You walk down the street, you get shot," Trump said. "We have gangs roaming the street. And in many cases, they're illegally here, illegal immigrants. And they have guns. And they shoot people. And we have to be very strong. And we have to be very vigilant."

The next segment of the debate was about protecting America from cyber attacks, and what approach they would take to confront this issue. Both of the candidates agreed that foreign state actors including ISIS were real threats to cyber security in the US and that this needed to be dealt with, though neither of them specified any detailed course of action.

On America's role of defend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rump had a very different opinion from that of Clinton. He said that America loses a lot of money in protecting other countries, and that the services must be charged as the nation is already under huge debt.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Bu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Trump said.

"They may have to defend themselves or they have to help us out. We're a country that owes $20 trillion. They have to help us out," he said. "I want to help all of our allies, but we are los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e cannot be the policemen of the world. We cannot protec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o this, Hillary remarked that the words which are heard from the leaders of a country matter and that good words need to come out from presidential candidates. She assured allies that America stands with them.

"Words matter when you run for president. And they really matter when you are president. And I want to reassure our allies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elsewhere that we have mutual defense treaties and we will honor them," said Clinton.

Many Evangelicals Support Trump in Opposition to Clinton, Survey Shows

BY CHRISTINE KIM

One-third of white evangelical Trump supporters say they support him in part due to their opposition to Hillary Clinton,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Pew Research Center conducted a survey online and by mail in August and September on 4,538 adults, a majority (3,941) of whom are registered voters.

A similar response came from Hillary Clinton supporters who mentioned opposition to Donald Trump as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chose to support Clinton.

Besides opposition to Clinton as a reason for their support, Trump supporters also cite a variety of other reasons. One quarter (27 percent) cite his position as a political outsider who will bring change, while another quarter of participants (26 percent) point to his various policy positions as some of the main reasons for their support.

"...he's not a career politician, and he doesn't owe politicians anything. He's got real-world experience that most career politicians lack," a 43-year-old Trump supporter said, according to the survey.

Among his various positions, eight-in-ten white evangelical Trump supporters cite his views on terrorism as a "major reason they support him."

In response to the Nice attack in July, Trump said, according to Fox News, "I would not allow people to come in from terrorist nations. I would do extreme vetting."

He asserted, "We should only admit in this country those who share our values and respect our people," arguing that "the time is overdue to develop a new screening test," in a speech on terrorism at Youngstown State University in August, according to CBS News.

Two-thirds of white evangelical Trump backers cite his leadership ability and his views on immigration as other majo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ir support.

His views on race relations (29 percent), and his personality (16 percent), are the least cited reasons for participants' support. In fact, over one-third of registered voters who are Trump backers mention his personality, specifically his temperament and unpredictability (34 percent), as their main concern about Trump.

According to a different survey by Pew, positive views of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declined significantly for the first time since 1992. A greater share of Americans describe themselves as "frustrated" (52 percent), "disgusted" (55 percent), or "scared" (43 percent) than they say they are "optimistic" (15 percent) or "excited" (10 percent) about this year's campaign.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회개! 부흥! 선거!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016 회개·부흥·선거

HEAL OUR LAND!

시간: **10월 23일** 주일 밤 **5시-8시**

장소: 디즈니랜드 옆에 위치한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Anaheim Convention Center: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이 나라에 강력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모여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야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부흥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에스더의 각오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 남가주지역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평신도연합회, OC장로협의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SOON Movement(KCCC), CMF, HYM, 미스바철야기도회, FireCrusade, Jesusholic Movement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찬투데이, 기독일보, 국민일보, CGNTV, CTS, 미주복음방송, CBS기독교FM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복음방송

문의: 323-933-4055 | 714-336-4378 | 714-615-919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